
조선의 의승, 기억과 추승의 담론

김 용 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머리말

I. 임진왜란 의승군과 승군의 연구사적 조명

II. 의승장에 대한 기억의 형상화와 평가

III. 추승의 상징 표충사 사액의 역사적 의미

맺음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6A3A01097807).
- 투고일: 2023. 11. 4. ● 심사일: 2023. 11. 20. ● 게재확정일: 2023. 12. 6.
- <https://doi.org/10.31218/TRKH.2023.12.152.93>

요약

임진왜란 당시의 승군(僧軍), 즉 의승(義僧)은 의병(義兵)과 마찬가지로 국난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나 유생(儒生)이 주도한 기억과 추송의 장에서는 의병에 비해 의승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그럼에도 청허 휴정(淸虛休靜)과 사명 유정(四溟惟政) 등 대표적 승장(僧將)에 대해서는 18세기에 들어 충의(忠義)를 기리는 표충사(表忠祠)가 지정되고 추모 향사(享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조선의 의승을 둘러싼 담론에 주목하여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해 보았다. 의승 활동은 근대기에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승군을 이끈 승장 관련 연구는 191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의승은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인정되었으며, 승군 활동이 불살생(不殺生)의 계율과 충의 사이의 딜레마를 내포하기는 했지만 유교사회에서 요구되는 충의의 선양, 불교의 자비(慈悲) 정신의 발현 등으로 해석되었다.

임진왜란 의승 활동은 불교가 조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전환적 계기가 되었다. 전쟁 이후 승군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승군과 승역(僧役)이 제도화되고 승도와 사찰의 존립 기반이 굳건해졌다. 승려는 공민(公民)의 자격과 의무를 갖게 되었고 사찰은 국가재정 운영 시스템 안에 편입되어 주어진 역할을 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의승 활동이 남긴 유산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주제어 : 승군(僧軍), 의승(義僧), 승장(僧將), 청허 휴정(淸虛休靜), 사명 유정(四溟惟政), 충의(忠義), 표충사(表忠祠), 승역(僧役)

머리말

조선의 의승(義僧)은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 승군(僧軍)을 가리킨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조선을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의승은 의병(義兵)과 마찬가지로 각지에서 전세를 뒤집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¹⁾ 하지만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의 추승의 장에서는 의병이 의승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승은 기억의 주변으로 밀려나야 했다.

근대에 들어 승군(僧軍)과 승장(僧將)은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 의승군을 일으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승장 관련 연구는 1910년을 전후로 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불교의 특성을 내포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서 주목되었고 조선 후기 승군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다룬 연구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임진왜란 의승군과 그 전통을 이은 이후의 승군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조선 후기에 승장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어떤 평가가 내려졌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의승장에 대한 추승의 염원이 담긴 표충사 사액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이를 통해 조선 의승에 대한 기억과 추승의 담론이 어떤 배경에서 전개되었고 또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김용태, 2012,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 37.

I. 임진왜란 의승군과 승군의 연구사적 조명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학술연구는 19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한국의 역사 문화, 민속과 종교 등에 대한 학술종교 조사사업을 시작하여 문헌과 유적 조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면서 불교 고서의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로 먼저 『조선불교관계서적해제』(1911)와 『조선사찰사료』(1911)가 나왔다.²⁾ 이 무렵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인식이 학술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바로 후루타니 기요시(古谷清)의 「조선이조불교사개설」(1911-1912)이었다. 여기서는 조선을 ‘배불승유’의 시대로 정의하고 ‘한 편의 불교 쇠망사’로 보면서 부녀자와 산촌 벽읍 서민의 신앙으로 불교가 겨우 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³⁾

그런데 조선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을 다룬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가 이른 시기부터 나왔는데, 바로 서산 휴정(西山休靜)과 사명 유정(四溟惟政)에 관한 논문이었다.⁴⁾ 휴정과 유정은 조선불교를 상징하는 고승이었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또 전후 외교 교섭까지 담당할 이력으로 일본 학자들의 주목을 끈 것이다. 조선의 승군 전통은 총독부의 종교·도서 조사 촉탁과 시학관으로 활동하다가 경성제대 조선어학문학 교수를 지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에게도 흥미로운 주제였다. 그는 1923년 여름 금강산 장안사(長安寺)에 가서 승려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승병으로 상징되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강조하였다.⁵⁾

2) 今西龍, 1911, 「朝鮮佛教關係書籍解題」, 『佛教史學』 1, 1-2-3; 朝鮮總督府 編, 1911, 『朝鮮寺刹史料』, 朝鮮總督府.

3) 古谷清, 1911-1912, 「朝鮮李朝佛教史概說」, 『佛教史學』 1, 3-4-5-6-8-11-12.

4) 見山望洋, 1908, 「韓僧中の紅一點的松雲大師」, 『朝鮮』 1-5; 古谷春峰, 1910, 「僧松雲傳」, 『宗教界』 6-8, 常盤大定, 1912, 「朝鮮の義僧西山大師」, 『大崎學報』 2.

5) 高橋亨, 1924-1925, 「僧兵と李朝佛教の盛衰」, 『佛教』 4-11.

다카하시는 그의 주저 『이조불교』(1929)에서 종지(宗旨) 및 전등(傳燈), 교법(教法)의 성쇠 등을 기준으로 조선불교의 시기 구분을 시도했다. 이 중 교법의 성쇠를 잣대로 한 3시기 구분론에서 제1기는 억압 속에서도 불교가 국가의 정식 공인을 받았던 성종대까지, 제2기는 승정 체제가 폐지되었지만 교법이 아직 쇠퇴하지 않고 명승도 배출된 인조대까지, 제3기는 효종대 이후 교세가 몰락하고 승려 지위가 급락하여 사찰이 근근이 명맥을 이고 불법이 거의 자취를 감춘 시기로 보았다.⁶⁾ 여기서 제2기는 휴정과 유정 등 고승이 나와 법맥을 계승하고 선과 교의 전통을 이은 시기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의 의승군 활동이었다.

한국인 학자들도 조선의 의승군 전통에 일찍부터 주목하며 그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최초의 한국불교사 개설서인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1917)에서는 임진왜란 때 휴정과 유정 등의 의승군 활동과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자세히 기술했고, 방대한 자료집이기도 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특기되었다.⁷⁾ 1930년대 말에는 또 다른 한국불교 개설서인 김영수의 『조선불교사고』(1939)가 나왔는데, 제3편 조선시대는 유불 교체와 억불정책, 국왕의 숭불과 폐불, 태고(太古) 법통의 정립과 강학의 성행, 정토신앙 등을 다루었다. 임진왜란과 의승군은 3편의 11장 ‘임진역과 청허’, 12장 ‘사명의 행인(行人)’에서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휴정의 승장 활동을 근왕(勤王)과 공훈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유정의 일본 사행을 교린으로 화해하여 나라를 평안히 한다는 ‘교화영국(交和寧國)’으로 높이 평가했다.⁸⁾

6) 高橋亨, 1929, 『李朝佛敎』, 寶文館의 「序說」.

7) 權相老, 1917, 『朝鮮佛敎略史』, 新文館, pp.199-205; 李能和, 1918, 『朝鮮佛敎通史』, 新文館.

8) 金映遂, 1939, 『朝鮮佛敎史稿』, 中央佛敎專門學敎(2002, 민속원, 『朝鮮佛敎史』로 복간).

해방 이후에도 의승군의 역사성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학문적 평가는 계속되었다. 1959년에 나온 우정상의 논문에서는 의승군 활동을 호국사상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이 글에서 조선 태조의 건국이념에는 유교 뿐 아니라 불교사상이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고승들이 건국과 개혁의 숨은 공로자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목적 중의 하나가 불교 문화재의 약탈이라고 보았고, 전란에서 의승군의 활약이 매우 컸음을 강조했다. 이후 승군의 남·북한산성 수호도 사원경제의 고갈이라는 문제는 있었지만 의승군의 호국사상을 계승하고 실천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⁹⁾ 우정상과 김영태가 공저로 낸 『한국불교사』(1969)에서도 불교가 호국신앙과 현세이익사상을 형성했다고 하면서 의승군 활동을 내세웠다. 휴정의 선과 교 등 통일 불교 완성과 호국불교 실천에 주목하여 그가 활동한 선조대를 기점으로 조선시대 불교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였다.¹⁰⁾

안계현도 「조선전기의 승군」(1972)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승군 활동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앞서 일어난 명종대의 을묘왜변과 승군 동원을 그 전사로서 살펴본 데 이어 평양성과 해주산성 전투, 승군의 군량 수송과 산성 수축, 총섭 제도와 승군에 대한 포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¹¹⁾ 이후 안계현의 『한국불교사연구』(1982) 총론에서는 국가, 효의 결합, 기복과 습합을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한국불교도 국가불교, 장례불교, 주술불교, 토착 신앙과의 습합이라는 특질을 가진다고 보았고 특히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¹²⁾

9) 우정상, 1959, 「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대하여-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 『백성욱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 논문집』, 동국대 기념사업위원회.

10) 우정상·김영태 공저, 1969, 『한국불교사』, 진수당.

11) 안계현, 1972, 「조선전기의 승군」, 『동방학지』 13,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2) 안계현, 1982, 『한국불교사연구』, 동화출판사.

김덕수의 『임진왜란과 불교 의승군』(1993)은 제목 그대로 임진왜란의 승군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개설서이다. 1편 조선불교와 의승군에서는 승군사 연구의 의의와 호국 승병의 재인식, 신라와 고려 승려의 호국 활동을 다루었고, 2편에서 임진왜란의 의승군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선 전기의 승군과 호국 사상을 서술하였다. 3편 불교의승군의 제도화에서는 남·북한산성 의승과 조선 후기 승군 제도 및 승역(僧役)을 고찰하였다. 이 책은 전라도에서 1천 명의 승군을 일으킨 승장 뇌묵 처영(雷默處英)이 권율(權慄)의 군대와 행주산성 전투에 참여한 사실 등 임진왜란 의승군의 구체적 활동상을 밝힌 체계적 성과이다. 전국 각지에서 의승 활동 사례, 이순신(李舜臣)의 전라좌수영에 가담한 400명의 의승 승군의 활동과 이후 승군 제도가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운영된 점 등 다채로운 역사상을 볼 수 있다.¹³⁾

김영태의 한국불교 통사인 『한국불교사』(1997)에서는 조선시대를 산승 승단의 ‘산승(山僧)시대’ 불교로 규정하고, 16세기 중반 이전의 선교양종 존립기, 17세기 전반까지의 산승 가풍 확립기, 조선 후기의 삼문 수업 존속기의 3기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제2기에서 의승군과 관련된 내용을 ‘휴정과 구국 흥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화하여 자세하게 기술했다.¹⁴⁾

이후 임진왜란 의승군을 조선 불교사의 ‘전환기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김용태의 논문(2012)에서는 의승군 활동을 주도한 휴정과 그 문도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전투 참여, 산성 축성 등 의승군의 구체적 활동 내용 및 업적을 정리했다. 또 전란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으로 승단의 인적·경제적 손실과 수행 기풍의 퇴조 등을 언급했다. 반면 전쟁은

13) 김덕수, 1993, 『임진왜란과 의승군』, 경서원. 호남의 의승 승군 관련 내용은 291~330쪽 참조.

14) 김영태, 1997, 『한국불교사』, 경서원. 이는 『한국불교사개설』, 1986, 경서원을 보완한 개정판이다.

불교의 종교적 효용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충의의 공적으로 인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승군 조직과 노동력 활용이 이후 관례화되면서 승려 자격과 활동이 용인되었고 이는 불교 존립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보았다.¹⁵⁾

또한 다른 글에서는 의승군 전통을 호국불교 문제와 연계하여 살펴보고 의승군 활동을 ‘충의와 계율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의승군은 불교와 국가와의 밀착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승군의 전쟁 참여는 살상 금지의 계율을 어긴 명백한 범계 행위였고 수행풍토의 약화와 환속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충의의 공적은 유교 사회에서 평가를 받았고 불교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또 승군의 활용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이후 승군 전통의 계승과 승역의 관행화가 이루어져 국가는 국역 체계 안에서 승려 노동력을 제도적으로 활용했고 이는 과도한 부담과 국가권력으로의 종속이라는 부정적 측면, 불교 존립의 토대가 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¹⁶⁾

지금까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은 승도의 노동력과 조직력이 매우 효용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었고, 17세기부터 승군의 제도적 활용과 승역의 국역 체계 편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승군과 승역 문제도 초기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였는데,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에서도 하편 「이백품제」의 <145> 「남한산사수성치영(南漢山寺守城緝營)」에서 남한산성 축성과 승군의 성내 사찰 주둔 및 산성 방어 문제를 다루었다.¹⁷⁾ 또 다카하시의 『이조불교』(1929)에서도 승역과 잡역, 사원경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¹⁸⁾

15) 김용태, 앞의 논문(2012).

16) 김용태, 2016,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동국사학』 61.

17) 이능화, 앞의 책, 하편 500~514쪽; 566~573쪽.

18) 高橋亨, 앞의 책, 548~549쪽.

1960년대에는 승역과 승려의 경제 활동을 검토한 연구가 나왔는데, 사찰에 대한 침탈과 지역(紙役) 등 승역 부담, 남·북한산성 승군 방번제(防番制), 호패(號牌) 지급과 군역(軍役)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졌다.¹⁹⁾ 1980년대에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승역 문제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 국가 부역 체계 운영에서 승역의 효율성이 인정되면서 승군의 군사적 기능이 완화되는 대신 부역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고 일반 양역(良役)의 감소 추세에 반비례하여 승역은 강화되었음이 밝혀졌다.²⁰⁾ 이는 국가 정책의 기조와 승려의 사회적 기능을 결부시켜 불교계의 실상을 구조적으로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승군을 통솔하는 총섭(總攝)에 관한 연구도 주목되는데, 총섭제가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고려 말에 수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국가에서 관할하는 군사적 성격을 띠면서 승도 통제와 승풍(僧風) 규정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²¹⁾ 또 승역이 국역 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17세기 후반부터 분향의 호적(戶籍)에 승려 호를 등재하여 직역의 하나로 승도를 관리했음을 밝힌 연구가 나와 반향을 일으켰다.²²⁾ 이밖에 17세기 중반 국가에서 승려를 권면과 경계의 대상으로 나누어 계층별로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관부문서를 발굴하여 분석한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²³⁾

한편 17세기 전반은 전란과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불교의 종교적 효용성이 크게 부각된 시기였는데, 전쟁 중 시체를 묻는데 승려들이 동원되

19) 이광린, 1962, 「이조 후반기의 사찰 제지업」, 『역사학보』 17-18; 우정상, 1963,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에 대하여」, 『불교학보』 1; 이종영, 1963, 「승인호패고」, 『동방학지』 17.

20) 박용숙, 1981, 「조선조 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 『부산대 논문집』 31; 윤용출, 1984, 「조선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논총』 26.

21) 여은경, 1987, 「조선후기 산성의 승군총섭」, 『대구사학』 32; 1987, 「조선후기 대사찰의 총섭」, 『교남사학』 3.

22)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23) 이준수, 2013, 「1652년 관부문서를 통해 본 효종대 불교정책 연구」, 『한국불교학』 67.

었고 야장(野葬)과 초제(醮祭)를 지낸 후 원혼 구제를 위해 수륙재를 개설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당시 전물 혼령을 위로하는 역할을 불교가 담당하여 연고 없이 죽은 무주고혼(無主孤魂)의 명복과 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와 수륙제가 빈번히 설행된 사실이 남희숙의 논문(2004)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²⁴⁾

2000년대 이후에도 승군과 승역 문제에 관한 연구는 계속 이어졌다.²⁵⁾ 오경후(2005)는 조선 후기 승역이 전란과 자연재해로 고갈된 국가재정을 메꾸기 위한 조치였고 대동법(大同法), 균역법(均役法) 시행 등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전개되었음을 거듭 강조했다.²⁶⁾ 고영섭(2014)은 조선후기 승군 제도가 당시 불교의 사회적 역할, 불교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보여주는 주요한 기제라고 보았다. 승군 제도는 사찰의 승역 부담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불교의 사회적 존재감을 확장시켜 불교 존립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불교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김용태(2015)도 남한산성과 승군의 활용 양상을 국가 정책의 전개 과정과 연동하여 파악했는데, 방어체제 정비를 위한 승군의 조직화와 8도 도총섭 임명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양란에서 승군의 활약은 불교의 용인과 승역의 제도적 운용이라는 정책 변화를 낳았고, 승려 노동력의 공적 활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불교계 입장에서 큰 경제적 부담이었지만 승려 자격과 활동이 용인됨에 따라 불교의 인적 재생산과 존립이 가능해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남한산성 승군제를 조선 후기 불교 정책이

24) 남희숙, 2004,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7세기 국가적 위기 상황이 불교의 종교적 대응과 대중화를 이루는 역사적 배경이었다고 본다.

25) 이종수, 「조선후기의 승군 제도와 그 활용」,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윤용출, 2013, 「조선후기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등이 있다.

26) 오경후, 2005, 「조선후기 승역의 유형과 폐단」, 『국사관논총』 107.

27) 고영섭, 2014,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72.

제도화된 기점이자 상징으로 본 것이다.²⁸⁾

최근에는 박세연(2022)이 17-18세기 승군역 운영방식의 변화와 의승방번전제를 재검토하면서 전쟁 이후 충섭을 통한 승군 모집이 이어졌지만, 효종이 군비 확장책을 시행하면서 의승(義僧)의 이름을 붙이고 중앙정부-도-군현-사찰로 이어지는 직접적 승군 조발 체계인 의승역(義僧役)을 시행했음을 밝혔다. 또 18세기에는 산성을 방어하는 승군 수요가 늘어난 반면 균역법 시행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며 남·북한산성 의승의 상변을 폐지하고 돈으로 대납하는 의승방번전제로 전환했지만 지방 승군은 확대되고 지방 산성의 의승이 등장했다고 본다.²⁹⁾

김선기의 박사논문(2023)에서는 조선 후기 승역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국가 운영 측면에서 승도와 사찰의 관리 실태를 규명하였다. 조선 후기에 승도가 승역을 기반으로 공적 시스템에 편입되었고 일반 백성과 동일한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 운영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승역은 정례화와 국역화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고 승도는 공민(公民)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사찰은 군현제 질서에 편입되었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18세기 중반 균역제 시행 이후 승역이 양역보다 과중해짐에 따라 ‘사폐승잔(寺弊僧殘)’ 현상이 가속화되었음에 주목하였다.³⁰⁾

이러한 조선 후기 승군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의 상황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조선 전기 도첩 및 도승 문제를 다룬 양혜원의 연구(2013·2019)에서는 면역 대상자인 승려 수가 급증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조선 초에 도첩제가 시행되었으며 승려는 면역 혜택을 받는 도첩 승려와 부역의 대상이 되는 하급 승려로 나뉜다고 보았

28) 김용태, 2015,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78, 183~205쪽.

29) 박세연, 2022, 「17~18세기 승군역 운영방식의 변화와 의승방번전제의 시행」, 『불교학보』 98.

30) 김선기, 2023, 『조선 후기 승역의 운영과 제도화』,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다. 조선 초의 도첩은 ‘제도적 출세간’을 용인하는 것으로 면역의 법적 증빙을 의미했다고 한다.³¹⁾ 또 조선 전기 승정체제의 성격을 검토한 손성필의 논문(2019)에서는 태종대와 세종대의 24사 및 36사의 지정 사찰을 제외한 사찰의 ‘혁거(革去)’는 승정체제로부터 지정 해제된 것이었고 사찰과 승도를 지원하고 관리·통제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축소 재편한 것이지 대부분의 사찰을 철폐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다.³²⁾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조선 후기 승군과 승역의 운영을 정책적 변화와 제도상의 특징에 주목하고, 또 통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 의승장에 대한 기억의 형상화와 평가

20세기 초부터 임진왜란의 의승장 청허 휴정과 사명 유정은 학술적 조명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도 일본인 학자들이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논문을 썼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임진왜란 때 승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전투에서 직접 맞서 싸웠고, 또 유정의 경우 전쟁이 끝난 후 국교 재개 교섭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으면서 일본 승려 및 지식인들과 교류하는 등 그 존재가 일본에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승장 유정에 대한 일본인 학자의 최초의 논문은 1908년에 나왔다. 여기서는 『사명당집』과 비문 등을 참조해 유정의 행적과 일본 체류 시기 오산(五山) 승려와의 교류 사실 등을 기술하였고 임진왜란 당시의 승장

31) 양혜원, 2013, 「고려 후기~조선전기 면역승의 증가와 도첩제 시행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2019, 「도승제 강화의 역사적 의의」, 『고려에서 조선으로-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역사비평사.

32) 손성필, 2019, 「사찰의 혁거, 철폐, 망폐-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오해」, 『진단학보』 132; 2019, 「조선 태종 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 개혁의 이해 방향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86.

활동과 에도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회담 및 외교 교섭을 특별히 강조하였다.³³⁾ 또한 「승송운전」(1910)이라는 글에서는 유교 측의 억압으로 쇠퇴하고 민중 신앙으로 산사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온 조선시대 불교사에서 그나마 두각을 드러낸 이로 유정을 지목하였다. 『어유야담(於于野談)』 등을 인용해 금강산 유점사에서 일본군의 횡포를 막고 절과 승려를 지켜낸 일화를 소개하고 가토 기요마사와의 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사료에 입각하여 생생히 밝혀 놓았다.³⁴⁾

사명 유정은 조선의 명승이자 유명 의승장으로서 이른 시기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에서는 『분충서난록(奮忠紆難錄)』(1739)의 글을 인용하여 유정이 일본에 갔을 때 병풍에 쓰인 글을 암송하고 구덩이 속의 독사와 불을 지핀 철마로 시험당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가 포로 3천 명과 함께 돌아왔고 이후 신승(神僧)으로 여겨졌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⁵⁾ 야담이나 소설로 전해지던 일본에서의 무용담을 액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국난 극복과 외교에서 행한 그의 역할과 업적만큼은 높이 평가하였다.

『분충서난록』에는 사명 유정에 대한 유학자들의 평가와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어유구(魚有龜)의 서문을 보면 “사명은 임진란의 위기를 당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전력을 다했으니 그 충의와 장렬함이 조헌(趙憲), 김천일(金千鎰) 등과 함께 우뚝하며 성취한 공적은 더 뛰어나 국가에서 극진하게 포상하고 보답했다.”고 기술하였다.³⁶⁾ 우의정을 지낸 송인명(宋寅明)의 발문에도 “이 책을 읽어보니 매우 감개하였다. 어찌면 사람을

33) 見山望洋, 앞의 논문

34) 古谷春峰, 앞의 논문. 여기서는 유정이 가토 기요마사에게 조선의 보배는 당신의 머리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양측의 공식 기록에는 없고 유몽인의 『어유야담』이나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 조선의 야담집과 야사에 처음 보인다고 하였다.

35) 이능화, 앞의 책, 하편 pp.814-819의 <奉使東隣政公奮忠>.

36) 『奮忠紆難錄』 「奮忠紆難錄小序」(魚有龜)(『韓國佛教全書』 8, 78쪽).

이처럼 경모하게 할 수 있던 말인가? 사명이 배운 것은 유가에서 배척하듯 임금과 부모를 저버리고 강상(綱常) 윤리를 등지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는 의승을 일으켜서 위태로운 난리에 칼날을 무릅쓰고 절의를 온전하게 하였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인륜을 돈독히 함이 이와 같으니 불교에서 말하는 진심(眞心)과 진성(眞性)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높이 평했다.³⁷⁾

사명 유정뿐 아니라 그의 스승이자 초대 8도 도총섭이 되어 의승군을 일으킨 청허 휴정도 대표적 의승장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개설적 연구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이능화 『조선불교통사』의 「이백품제」가운데 <140> 「함허청허부종수교(涵虛淸虛扶宗樹教)」에서는 조선 초기의 학승 함허 기화(涵虛己和)에 이어 조선불교의 중흥을 이끈 청허 휴정의 활약상을 다루었다.³⁸⁾ 다카하시 도루도 『이조불교』에서 휴정의 행적과 위상을 서술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그중 흥미로운 것은 임진왜란 때 전라도 태인의 손홍록(孫弘祿)이 전주 경기전(慶基殿)에 있던 태조진영과 역대 13대 실록을 반출하자 휴정이 그 보관을 책임져서 도력과 그 공적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³⁹⁾

해방 이후에도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구국 항쟁과 대표적 의승장인 휴정과 유정의 충의의 공적을 호국불교의 관점에서 다룬 논저들이 연이어 나왔다.⁴⁰⁾ 2000년 이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경순(2005)은 유정과 감로탱 이미지를 중심으로 기억으로서의 ‘임진왜란과

37) 『분충서난록』 「奮忠紆難錄跋」(宋寅明)(『한국불교전서』 8, 107쪽).

38) 이능화, 앞의 책, 하편의 <涵虛淸虛扶宗樹教>.

39) 高橋亨, 앞의 책, 372~373쪽.

40) 김동화, 1971, 「호국대성 사명대사 연구: 서론, 사상」; 김영태, 「호국대성 사명대사 연구: 생애, 설화」, 『불교학보』 8; 김영태, 1975, 『서산대사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김승동, 1982, 「유정의 호국사상」, 『부산대 인문논총』 21; 사명당기념사업회, 2000,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지식산업사.

불교’를 추적하였다. 여기서는 역사기록뿐 아니라 문학작품과 회화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기억의 층위를 살펴보았는데, 소설 『임진록』에 등장하는 사명 유정의 이미지는 유교적 충의라는 공식 기억과는 달리 왜왕을 굴복시키고 위정자를 징계하는 민중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졌다.⁴¹⁾ 민덕기는 유정에 대한 역사적 전승을 고찰한 논문(2006)에서 유정의 출생지이자 표충사가 세워진 밀양에서는 근현대기에 동학, 일제 강점, 해방, 한국전쟁 등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표충비가 땀을 흘린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 지역에서 유정은 수호신으로 여겨졌다고 한다.⁴²⁾

정출현은 사명 유정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을 다룬 논문(2014)에서 임진왜란의 전쟁영웅 가운데 가장 다채롭게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 유정이지만 전승된 내용은 사실과 가까운 것, 과장된 것, 턱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뉘므로 기억의 서사로 재구성된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승장 유정의 이미지는 불교의 자비와 유교의 충의가 경쟁하다가 국가의 지원으로 후자가 승리했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⁴³⁾ 한상길은 유정의 ‘사문상’을 추적한 논문(2017)에서 구국 의승의 관점에서 조명된 유정의 생애와 활동을 사문으로서의 출가와 수학, 수행과 정진, 깨달음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진면목을 살펴보려 하였다. 유정은 철저히 사문이었고 그렇기에 그의 구국 활동은 중생구제의 방편, 자비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김용태는 ‘사명대사’ 인식의 생성과 확산을 다룬 논문(2018)에서 유정

41) 이경순, 2005, 「기억으로서의 ‘임진왜란과 불교’: 17~18세기 사명당 유정과 감로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마음사상』 3, 진주산업대, 37~41쪽.

42) 민덕기, 2006, 「사명당에 대한 역사적 전승- 그의 도일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29, 37~41쪽.

43) 정출현, 2014,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45.

44) 한상길, 2017, 「사명당 유정의 사문상」, 『정토학연구』 28.

에 대한 불교계와 유학자의 인식, 그리고 민간에 전승된 이미지의 대중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휴정의 적전인 유정의 위상으로 인해 사명과는 17세기에 주류 문파의 위상을 차지했고 1738년 밀양 표충사의 사액 과정에서 사명파와 편양파의 통합 인식이 나타났다. 당시 유학자들은 임진왜란에서의 그의 활동과 일본에서의 외교적 교섭을 충의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했고 그러한 인식이 표충사 향사로 귀결되었다. 한편 민간의 전승에서 유정의 이미지는 ‘영웅적 서사의 확대 재생산’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조선 후기 사명대사 인식은 충의의 사표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승화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갔다는 내용이다.⁴⁵⁾

오경후(2019)는 유정에 대한 조선 후기의 인식과 평가를 충의의 장수와 수행 승려로 대별하며 전쟁 참여는 국가와 부모, 스승과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전란의 와중에도 유정은 산중에서의 수행을 그리워했음을 강조하면서 그의 충의는 불교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고 보았다.⁴⁶⁾ 이철현(2019)은 유정의 충의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대개는 의병장과 더불어 의승장을 충신으로 인식하며 겉은 승려이지만 속은 유자라고 보았으며, 충의의 대가로 당상관직 제수와 3대 조상의 추증, 표충사 창건 등을 거론했다. 나아가 유정이 국왕과 중생의 은혜를 갚고 왜적의 악행을 멈추겠다는 자비심으로 참전했다고 결론 지었다.⁴⁷⁾

미술사 논문에서도 사명 유정이 다루어졌다. 진영의 도상을 분석한 박주영(2022)의 글은 밀양 표충사에 제향을 위해 유정의 진영이 봉안된 후 여러 사찰에서 다수 조성되었는데, 유정 진영은 긴 수염을 특징으로 하며

45) 김용태, 2018, 「조선후기 사명대사 인식의 생성과 대중적 확산」, 『동아시아불교문화』 36.

46) 오경후, 2019, 「조선 중후기 사명대사 인식과 평가」, 『보조사상』 53.

47) 이철현, 2019, 「사명당 유정의 충의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 『종교교육학연구』 61.

처음에는 나한도와 유사한 수염 기른 선승의 모습이었다가 천왕이나 시왕의 수염과 미간 주름, 제수된 직위를 기재하는 등 의승장의 형상이 주류가 되었다고 보았다. 20세기 이후에는 관우·산신 등과 유사한 수염이 등장하고 다양한 민화의 도상을 도입하여 민간에서 신격화된 유정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한다.⁴⁸⁾

한편 근래 휴정에 대한 연구는 의승장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조선 후기 불교의 토대를 이룬 그의 선과 교의 사상, 선교겸수에 기반한 그의 수행 체계에 집중되었다.⁴⁹⁾ 다만 최근 나온 김경태의 논문(2020)에서는 휴정의 의승군 활동이 조선이 전쟁을 극복하는 데 자산이 되었고 불교가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는 물론 후대의 평가를 검토하여 의승군 활동을 충의 이념으로 기리면서 국가적·사회적으로 칭송했음을 확인하였다.⁵⁰⁾

휴정과 유정 외에 의승장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된 이는 호남의 승군을 이끈 뇌묵 처영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근래 양은용(2020)이 임진왜란 당시의 활동상을 자세히 밝히고 금산사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금산사 출신의 처영은 청허 휴정의 제자로서 ‘구세제인(救世濟人)’을 위해 1,000명의 호남 의승군을 일으켰고 1593년 행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정조대에 휴정, 유정과 함께 구국 삼화상으로 추존되어 해남 표충사 등에 진영이 봉안되었다.⁵¹⁾

김상영도 행주대첩 등 처영의 활동과 공적에 대한 연구(2021)를 수행

48) 박주영, 2022, 「사명 유정 진영의 도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314.

49) 김용태, 2015, 「청허 휴정과 조선후기 선과 화업」, 『불교학보』 73; 김호귀, 2015, 「청허휴정의 선교관 및 수증관」, 『범한철학』 79-4; 고영섭, 2017, 「청허휴정의 선교 이해」, 『불교학보』 79 등을 들 수 있다.

50) 김경태, 2020, 「임진왜란 시기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의 의승군 활동과 평가」, 『국학연구논총』 25.

51) 양은용, 2020, 「뇌묵 처영의 의승 활동과 금산사」, 『한국종교』 47.

했는데, 의승장 처영은 후세에 ‘우세존자(佑世尊者)’로 추앙되었고 해남 표충사와 묘향산 수충사(酬忠祠)에서 휴정에 배향되었다. 무엇보다 생몰년이 알려지지 않은 처영의 1569년(선조 2) 행적을 확인했고 그가 1630년대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영이 16세기 후반 전라도 지역의 명사들과 활발히 교류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⁵²⁾ 이처럼 의승장에 대한 조선 후기의 기억들이 학술의 영역에서 형상화되었고 의승장에 대한 평가 또한 점차 높아졌다.

Ⅲ. 추승의 상징 표충사 사액의 역사적 의미

의승군 활동과 충의의 공적은 불교에 대한 윤리적 비판의 소지를 없애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제도권 밖에 놓여있던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들고일어나 사대부 유생이 주도한 의병 활동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성과를 낸 것은 당시는 물론 후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장으로 유명했던 장유(張維)는 휴정의 비문에서 “만년에는 얽매임이 없이 자유자재하였으니 겉모습만을 보는 이들은 이를 계율에 어긋난 일이라 의심을 하지만 식견 있는 이들은 병통으로 여기지 않았다.”⁵³⁾고 하여 계율과 배치되는 승장 활동을 변호하면서 충의의 진정성을 높이 샀다. 불교계에서도 휴정에 대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총림을 움직인’ 업적을 강조했고,⁵⁴⁾ 불교가 ‘제세

52) 김상영, 2021, 「뇌목 처영의 의승활동과 그 공적」, 『한국선학』 60.

53) 「淸虛堂大師碑銘」(『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2000, 伽山佛教文化研究院), 61쪽).

54) 『青梅集』 권하, 「爲松雲大師疏」; 「松雲大師祭文」; 「跋」(『한국불교전서』 8, 152~156쪽).

안민(濟世安民)’과 ‘복민우세(福民佑世)’에 기여했음을 자부심 어리게 드러냈다.⁵⁵⁾

의승장의 충의의 공적을 표창하고 추송하는 표충사의 건립 움직임은 18세기 초에 사명 유정의 고향이자 선영이 있는 밀양에서 시작되었다. 유정의 영당(影堂)을 만들게 된 계기는 흥미롭게도 1714년 밀양의 재지 사족들이 상서를 올리면서부터였다. 1721년 국가에서 춘추 제향의 비용을 내는 표충사의 건립으로 이어졌고 1738년에는 주요 서원과 같은 급인 사액사우(賜額祠宇)로 지정되었다.⁵⁶⁾ 이후 1789년에 휴정을 주향하고 유정과 처영을 배향하는 해남 표충사, 1794년에는 묘향산의 수충사가 동등한 예로 건립되어 공식 향사가 이루어졌다.

당시에 정조는 “석가(釋家)는 중생을 구제함을 으뜸으로 삼으며 계율과 선정(禪定), 지혜 또한 결국에는 자비가 아님이 없어서 자비보다 높은 가르침은 없다. 서산대사 휴정은 처음에는 법의 깃발을 세워 사람과 하늘의 안목이 되었고, (선조의) 은총이 내려지고 대우가 특별하였다. 중간에는 종풍을 발현하여 국난을 구제하고 의병을 일으켜 임금을 위해 힘을 써서 큰 공훈을 세웠다. 자신의 손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란을 깨끗이 없앴으니 방편으로 세상을 구제한 공을 지금까지도 길이 의지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인연이 다해 몸을 거두고 인과(因果)에 의해서 상승(上乘)의 교주가 되어 피안(彼岸)에 이르렀다. 그의 진영을 지금 서쪽(묘향산)과 남쪽(해남)에 모시고 제향하니, 이 정도가 되어야 끝없는 대천(大千) 세계를 구제하고 속세에 은혜를 베풀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휴정의 구국행이 자비의 실천이라고 높이 평가했다.⁵⁷⁾ 이 시기는 의승장인 휴정과

55) 『奇巖集』 권3, 「表訓寺海會堂勸善文」; 「長安寺重創勸善文」; 「金剛山長安寺法堂造成勸善文」(『한국불교전서』 8, 176~181쪽).

56) 조영록, 2000, 「유불 합작의 밀양 표충사」,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507~525쪽.

57) 『淸虛堂集』 補遺, 「正宗大王御製西山大師畫像堂銘并序」(『한국불교전서』 7, 735~736쪽)

유정 등 호국의 영웅들을 나라에서 기리고 제사를 올리는 추숭의 시대였다.

당시 제일의 문장가이자 영의정을 지낸 남공철(南公轍)도 1800년에 쓴 건봉사의 「사명대사 비문」에서 “서산(휴정)과 사명(유정)이 했던 일을 보면 군신과 부자의 의리를 지켰다. 유학자 옷을 입고 관을 쓴 채 성리학을 궁구하고 인의를 말하면서도 실체가 없는 이들과는 다르다. 불교의 이름으로 유교를 실천하면 우리의 도이고 유교의 이름으로 불교를 행하면 이단이다. 일본은 불교를 숭상하고 믿었는데 (사명)대사의 충성과 신의가 전해졌기에 그 나라 사람들이 감복했다고 한다. 서산은 물러나서 도를 지켰고 사명은 뜻을 굽혀 만물을 구제하였으니 각자의 뜻이 있지만 나라를 위한 충성에 있어서는 같다.”고 적고 있다.

의승장을 추모하고 기리는 공간인 표충사의 건립을 다룬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동표는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주도권 분쟁을 다룬 논문(2000)에서 태허 남봉(太虛南鵬)의 청원에 의해 1738년(영조 14) 정식 사액이 이루어지고 이듬해 유정 관련 기록인 『분충서난록』이 간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유정이 입적한 해인사 홍제암(弘濟庵) 측에서 연고를 주장하면서 주도권 갈등이 있었고 이전부터 향사한 사실을 입증한 표충사 측이 승리하였음을 규명하였다.⁵⁸⁾ 이후 40여 년이 지난 1783년에 해인사의 입장을 두둔한 승려들이 밀양 표충사에 봉안된 휴정, 유정, 기허 영규(騎虛靈圭)의 영정을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추숭을 둘러싼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⁵⁹⁾

한편 해남 대둔사의 표충사 건립 과정과 그 불교사적 의미를 고찰한 김용태의 논문(2007)에서는 청허계 편양파(鞭羊派)와 소요파(逍遙派)가 함께 대둔사의 전통을 일구었고 8도의 ‘종원(宗院)’을 표방하고 『대둔사

58) 장동표, 2000,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우(祠宇) 이건 분쟁」, 『역사와 현실』 35.

59) 남동신, 2001, 「조선후기 불교계 동향과 『상법멸의경』의 성립」, 『한국사연구』 113.

지(大菴寺志)』를 펴냈음을 밝혔다. 이러한 자신감 표명의 근거가 된 것은 휴정의 의발 전래와 그것을 매개로 생성된 ‘서산유의(西山遺意)’, 그 결과로 이루어진 표충사 건립이었다. 대둔사의 12대 종사와 강사는 편양파와 소요파 조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허계의 본산을 지향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전수의 기준이 화엄 강회였던 점도 관심을 끈다.⁶⁰⁾

밀양 표충사에 대한 유교계와 불교계의 인식을 다룬 이철현의 논문(2013)에서는 밀양의 유림과 승려들이 유정의 충성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표충사를 세워 향사를 지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향촌 질서를 주도한 밀양의 유림들은 먼저 이 지역의 의병장을 추모하는 사당을 만들었고 이어서 해당 지역 출신인 의승장 유정의 사당 조성을 건의했다. 이에 승려들이 모연하여 표충사를 지었는데, 불교 측에서는 국왕과 백성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살행을 한 고승으로 유정을 추모하며 제향하려 했다고 한다. 또한 표충사에는 위전(位田)이 주어지고 잡역을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져서 사격을 높일 수 있었다.⁶¹⁾

김상영(2012)은 휴정의 사문상과 표충사 제향의 의의를 검토했는데, 승려의 본분과 맞지 않는 승장보다는 사문의 면모를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여기서서 새로 공개된 「사액제문(賜額祭文)」과 「향례홀기(享禮笏記)」를 근거로 휴정을 추념하는 국가 차원의 해남 표충사 건립과 제향 봉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충사 등 사액사우의 건립은 임란 이후 150~200년이 지난 뒤였고 의승군의 큰 희생과 전공에 비해 의승장을 제향하는 사우 건립이나 운영비용의 조달은 조정 입장에서는 ‘사소한 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욱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고행에 버금가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 불교사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⁶²⁾

60) 김용태, 2007, 「조선후기 대둔사의 표충사 건립과 ‘종원’ 표명」, 『보조사상』 27.

61) 이철현, 2013, 「표충사에 대한 유교계와 불교계의 인식」, 『불교학보』 64.

이철현(2015)은 표충사 춘추 제향의 역사와 실행 양상을 검토했는데, 지역 사람들이 향촌 질서를 복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임진왜란의 의병장과 충신을 기리는 사당을 건립하고 조정에 요청하여 사액을 받았음을 살펴보았다. 밀양 사람들은 유정의 사당 건립을 건의하고 승려들이 모연하여 1715년 영당을 짓고 표충사 현판을 걸었으며 관의 지원으로 휴정을 배향하여 춘추 제향을 지내다가 1738년 사액을 받아 영규를 추향했다. 이어서 해남 대둔사에서 휴정을 추향하고 유정과 처영을 배향하는 사당의 건립과 사액을 요청해 1788년에 허가되었지만, 사액 사당인 이들 표충사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모두 철향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관과 유생, 사찰의 주도로 제향이 이어졌음도 언급하고 있다.⁶³⁾

표충사 춘추 제향에서 승려의 직책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힌 이철현의 논문(2016)에서는 유정을 추향하고 휴정과 영규를 배향한 밀양 표충사가 1738년 사액을 받은 뒤 유교식 제향 절차에 따라 봄과 가을에 향사를 지냈음을 밝혔다. 이후 1788년 휴정을 추향으로 하는 해남 표충사도 사액을 받아 밀양의 예에 따라 춘추로 제향을 지냈는데 사찰에 위치한 유교식 사당인 표충사의 제향 절차는 유교 서원과 대동소이었다고 한다. 다만 제향 대상이 승려이고 사찰 내에서 지냈으므로 물고기와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술 대신 차를 썼으며, 또 제향의 집사와 집례는 승려들이 맡았고 표충사의 주요 직책은 원장, 향사를 총괄하는 도총섭, 실질적으로 제향을 집행하는 도유사, 승려들을 통솔하여 향사를 지원하는 도승통 등이 있었다고 한다.⁶⁴⁾

이종수(2018)는 18세기 표충사와 수충사 건립과 국가의 사액에 대해

62) 김상영, 2012, 「청허 휴정의 사문상과 표충사 제향의 의의」, 『한국선학』 33.

63) 이철현, 2015, 「표충사 춘추제향의 역사와 실행- 밀양 표충사와 해남 표충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6.

64) 이철현, 2016, 「표충사 춘추제향을 통해 본 승려의 직책과 역할」, 『불교학보』 77.

정리했는데, 조선 후기 유교적 질서 재건을 위한 충의 현창 사업의 영향으로 밀양 표충사가 세워짐으로써 불교계에서 임진왜란의 충의 승려의 사당 건립과 사액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둔사에서 휴정 사당과 사액의 당위성을 건의한 결과가 해남 표충사의 지정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묘향산 보현사가 휴정의 입적지임을 내세우며 요청하여 1794년 ‘수충(酬忠)’의 편액이 하사되었고 정조는 이때 친필 「서산대사화상당명병서」를 내렸다. 이에 1797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유정이 수행한 곳임을 들어 사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건봉사에서는 1800년 사당인 수충각을 짓고 비석을 세움으로써 18세기 불교계의 충의 승려 사액운동의 대미를 장식했다.⁶⁵⁾

김상영(2021)은 밀양 표충사 서간첩의 간독 자료 분석을 통해 태허 남봉과 사명 유정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는 2015년부터 밀양 표충사 소장 2,700여 종의 고문서를 조사하여 그 성과를 2017년에 『밀양 표충사 시첩』과 『밀양 표충사 서간첩』으로 펴낸 바 있다. ‘간독(簡牘)’이라는 이름의 서간첩 6권은 처음 공개된 신자료인데 밀양 표충사 건립과 『분충서난록』 간행을 주도한 태허 남봉이 받은 231통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 전반에 대한 해제와 함께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남봉의 행적 관련 기록을 살펴보았으며 간독에 실려 있는 사명 유정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⁶⁶⁾ 이처럼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의승장에 대한 추송의 상징인 표충사 사액의 실체와 그 역사적 의미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65) 이종수, 2018, 「18세기 불교계의 표충사와 수충사 건립과 국가의 사액」, 『불교학연구』 56.

66) 김상영, 2021, 「태허 남봉과 사명대사 『밀양 표충사 서간첩』 간독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마음연구』 7.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의 의승을 둘러싼 기억과 추승의 담론에 주목하여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승군 활동이 조선 사회에서 불교가 지분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의승군 활동은 불살생의 계율과 충의 사이에서 충돌하는 딜레마를 내포했지만, 유교 사회에서 요구되는 충의의 선양, 불교의 자비 정신의 발현, 호국의 대표적 사례로서 해석되는 등 의승 활동의 의미와 그 유산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의병에 비해 의승에 대한 추승의 강도와 비중은 크지 않았고 유교 사회의 특성상 유생 사대부 위주의 현상이 주류였다. 다만 청허 휴정과 사명 유정 등 대표적 의승장에 대해서는 18세기에 들어 충의를 기리는 표창사가 지정되고 향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가의 위기에 맞서 싸운 승군 활동의 결과 불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불교가 존립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마련되었다. 전쟁 이후 승군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승군과 승역이 제도화되고 승도와 사찰의 존립 기반이 굳건해졌다. 승려는 공민의 자격과 의무를 갖게 되었고 사찰은 국가재정 운영 시스템 안에 편입되어 나름의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이루어졌다. 또한 불교계는 계파와 문파를 형성하며 교단 존립을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17세기 전반에는 교육과정과 수행체계가 정비되고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담은 임제종 법통이 공론화되었다. 이처럼 의승군 활동은 조선 후기 불교를 활성화하고 전통 계승의 기반을 만들어낸 전환기적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의승군에 대한 기억과 추승의 담론 및 그에 대한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2000, 伽山佛教文化研究院)

『韓國佛教全書』(1979-2004, 東國大出版部)

2. 논저

見山望洋, 1908, 「韓僧中の紅一點的松雲大師」, 『朝鮮』 1-5

古谷春峰, 1910, 「僧松雲傳」, 『宗教界』 6-8

今西龍, 1911, 「朝鮮佛教關係書籍解題」, 『佛教史學』 1, 1·2·3

古谷清, 1911-1912, 「朝鮮李朝佛教史概說」, 『佛教史學』 1, 3·4·5·6·8·11·12

常盤大定, 1912, 「朝鮮の義僧西山大師」, 『大崎學報』 2

權相老, 1917, 『朝鮮佛教略史』, 新文館

李能和, 1918, 『朝鮮佛教通史』, 新文館

高橋亨, 1924-1925, 「僧兵と李朝佛教の盛衰」, 『佛教』 4-11

高橋亨, 1929, 『李朝佛教』, 寶文館

金映遂, 1939, 『朝鮮佛教史稿』, 中央佛教專門學教

우정상, 1959, 「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대하여-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
『백성욱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 논문집』, 동국대 기념사업위원회

이광린, 1962, 「이조 후반기의 사찰 제지업」, 『역사학보』 17·18

우정상, 1963, 「남북한산성 의승방변전에 대하여」, 『불교학보』 1

이종영, 1963, 「승인호패고」, 『동방학지』 17

우정상·김영태 공저, 1969, 『한국불교사』, 진수당

김동화, 1971, 「호국대성 사명대사 연구: 서론, 사상」, 『불교학보』 8

김영태, 1971, 「호국대성 사명대사 연구: 생애, 설화」, 『불교학보』 8

안계현, 1972, 「조선전기의 승군」, 『동방학지』 13,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 김영태, 1975, 『서산대사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 박용숙, 1981, 「조선조 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 『부산대 논문집』 31
- 김승동, 1982, 「유정의 호국사상」 『부산대 인문논총』 21
- 안계현, 1982, 『한국불교사연구』, 동화출판사
- 윤용출, 1984, 「조선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논총』 26
- 여은경, 1987, 「조선후기 산성의 승군총섭」 『대구사학』 32; 「조선후기 대사찰의 총섭」 『교남사학』 3
- 김덕수, 1993, 『임진왜란과 의승군』, 경서원
- 김영태, 1997, 『한국불교사』, 경서원
- 사명당기념사업회, 2000,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지식산업사
- 장동표, 2000,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우(祠宇) 이건 분쟁」 『역사와 현실』 35
- 남동신, 2001, 「조선후기 불교계 동향과 『상법멸의경』의 성립」 『한국사연구』 113
- 조영록, 2000, 「유불 합작의 밀양 표충사」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 남희숙, 2004,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후, 2005, 「조선후기 승역의 유형과 폐단」 『국사관논총』 107
- 이경순, 2005, 「기억으로서의 ‘임진왜란과 불교’: 17~18세기 사명당 유정과 감로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마음사상』 3, 진주산업대
-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 민덕기, 2006, 「사명당에 대한 역사적 전승- 그의 도일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29
- 김용태, 2007, 「조선후기 대문사의 표충사 건립과 ‘종원’ 표명」 『보조사상』 27
- 김상영, 2012, 「청허 휴정의 사문상과 표충사 제향의 의의」 『한국선학』 33
- 김용태, 2012,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 37

- 이종수, 2012, 「조선후기의 승군 제도와 그 활용」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 양혜원, 2013, 「고려후기¹⁰조선전기 면역승의 증가와 도첩제 시행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 윤용출, 2013, 「조선후기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 이종수, 2013, 「1652년 관부문서를 통해 본 효종대 불교정책 연구」 『한국불교학』 67
- 이철현, 2013, 「표충사에 대한 유교계와 불교계의 인식」 『불교학보』 64
- 고영섭, 2014,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72
- 정출현, 2014,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45
- 김용태, 2015,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78; 「청허 휴정과 조선후기 선과 화엄」 『불교학보』 73
- 김호귀, 2015, 「청허휴정의 선교관 및 수증관」 『범한철학』 79-4
- 이철현, 2015, 「표충사 춘추제향의 역사와 설행- 밀양 표충사와 해남 표충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6
- 김용태, 2016,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동국사학』 61
- 이철현, 2016, 「표충사 춘추제향을 통해 본 승려의 직책과 역할」 『불교학보』 77
- 고영섭, 2017, 「청허휴정의 선교 이해」 『불교학보』 79
- 한상길, 2017, 「사명당 유정의 사문상」 『정토학연구』 28
- 김용태, 2018, 「조선후기 사명대사 인식의 생성과 대중적 확산」 『동아시아 불교문화』 36
- 이종수, 2018, 「18세기 불교계의 표충사와 수충사 건립과 국가의 사액」 『불교학연구』 56
- 손성필, 2019, 「사찰의 혁거, 철획, 망폐-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

- 에 대한 오해」 『진단학보』 132; 「조선 태종 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 개혁의 이해 방향과 관련
하여」 『한국사연구』 186
- 양혜원, 2019, 「도승계 강화의 역사적 의의」 『고려에서 조선으로- 여말선
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역사비평사
- 오경후, 2019, 「조선 중후기 사명대사 인식과 평가」 『보조사상』 53
- 이철현, 2019, 「사명당 유정의 충의에 대한 사대부의 평가」 『종교교육학
연구』 61
- 김경태, 2020, 「임진왜란 시기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의 의승군 활동과 평가」
『국학연구논총』 25
- 양은용, 2020, 「뇌목 처영의 의승 활동과 금산사」 『한국종교』 47
- 김상영, 2021, 「뇌목 처영의 의승활동과 그 공적」, 『한국선학』 60
- 김상영, 2021, 「태허 남봉과 사명대사 『밀양 표충사 서간첩』 간독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마음연구』 7
- 박세연, 2022, 「17~18세기 승군역 운영방식의 변화와 의승방변전제의 시행」
『불교학보』 98
- 박주영, 2022, 「사명 유정 진영의 도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314
- 김선기, 2023, 『조선 후기 승역의 운영과 제도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The Monks' Militia in Joseon: Discourses of
Memory and Memorialization

Kim, Yongtae

Although the monks' militia or monks' righteous militia played a crucial role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just as the righteous army did, the monks' militia was not hardly remembered or memorialized by the state or the literati class, especially compared to the righteous army. Nonetheless, renowned monk-generals, such as Cheongheo Hyujeong 淸虛休靜 and Samyeong Yujeong 四溟惟政, were enshrined in the eighteenth century into Pyochungsa 表忠祠 in honor of their loyalty where the memorial rite for them wa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surveys previous scholarship, focusing on discourses on the monks' militia in Joseon. The monks' militia received scholarly attention quite early as research on the monk-general began in the 1910s. This attention to the monks' militia continued after Liberation as it was regarded as the symbol of state-protection Buddhism. While the dilemma between violating the precept of non-killing and practicing loyalty was recognized, its activities were understood as not only the expression of Buddhist compassion but also the promotion of loyalty, a virtue demanded in a Confucian society.

The loayl activities of the monks' militia during the Invasions served as a turning point for Buddhism to play a meaningful social role in the

Joseon society. As the efficacy of the monks' militia was recognized, the monks' militia and the monks' state duty were institutionalized and, as a result, the foundation for the survival of the monks and temples were more firmly in place. The monks were accepted as legitimate people of Joseon and the temples were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finance system while the according duties and rights were given to them. These are heritiages of the monks' militia, the assessment of which is still underway.

Keywords : monks' militia (seunggun 僧軍), righteous monks (uiseung 義僧), monk-general (seungjang 僧將), Cheongheo Hyujeong (清虛休靜), Samyeong Yujeong (四溟惟政), Loyalty (忠義), Pyochungsa (表忠祠), monks' state duty (seungyeok 僧役)